

방송 단신

21시간 생활정보·뉴스 전달

불교광주방송 개국

불교광주방송이 1일 개국, FM 89.7MHz 3W 출력으로 전남·북 일원에 포교전파를 방사했다.

매일 새벽 5시 아침에 불로 시작하여 다음날 02시 사후사원을 끝으로 하루 21시간 방송하는 불교광주방송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포교, 신행프로그램과 매시간 뉴스, 오락, 생활정보등을 방송한다. 불교광주방송은 지난 3일 오후 5시 신양파크호텔 그린드볼룸에서 개국축하법회를 봉행했다.

<광주 자체제작프로>

◇열린아침 열린정보(월~토, 오전 8시 30분~8시 55분): 지역정보 프로그램으로 매일 애환 남도의 주간 문화계 소식과 취업정보, 농사정보, 신간안내로 이루어지며 광주 전남·북 지역의 사찰명승지를 소개하고 향토사찰연중 캠페인으로 '자연과 환경을 살립니다'를 펼친다.

◇반야의 샘(월~토, 오후 4시10분~4시40분): 백제불교문화의 이해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명승을 찾아 소개한다.

본래 있던 호남지역의 신행단체를 발방하여 호남불교의 살아있는 맥박을 전하며 '89.7MHz 계시관'을 통해 호남지역 불교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BBS, 출가·열반절 특집

불교방송은 3월 8일 출가절과 3월 15일 열반절을 맞아 경건주간 특집프로그램을 방송한다.

8일 출가절에는 특별좌담 '출가정신의 구원'(20:05분~20:55분)을 마련하여 진정한 출가정신과 이시대의 구원방향을 스님,재가자가 참여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스님들의 출가담시 초발심과 행자시절의 이야기를 녹음구성으로 제작하는 '나의 출가시절'(19:20분~20:00분)과 특별법문 '출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가 방송된다.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출가정신과 출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큰스님의 법문으로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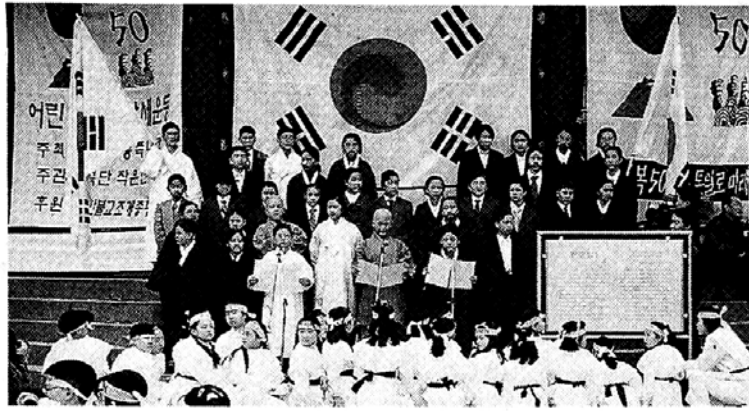
15일 열반절에는 쿠시나카라에서 열반하신 부처님이 후세에 남긴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를 밝혀보는 특별좌담 '열반의 교훈'(20:05분~20:55분)이 방송되고, 큰스님들의 열반송을 들어보는 '니르바나의 향기'(19:20분~20:00분)와 스님의 특별법문 '절대평화로서의 열반'(10:05분~10:55분)을 통해 열반이란 말의 참된 의미와 그 현대적 의의를 알아본다.

지자체 순의 총 12억원 불교방송 결산이사회

불교방송 94년도 결산이사회가 지난달 27일 20명의 이사 중 17명의 이사가 참가한 가운데 신라호텔 23층 에브와르 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94년도 당기순익 12억 6백만원의 결산안이 통과되고 3·4월로 임기가 마감되는 5명의 이사 재선임건이 심의됐다.

이날 이사회는 서의현이사를 제외한 4명의 이사를 유임시키고 감사에 이재화(공인회계사)씨가 선임됐다.



독립만세의 함성. 지난 1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동쪽나라' 주제로 구름사·석영사·조계사 어린이회, 교동·재중국민학생 500여명이 3·1독립만세운동을 재현했다.

3·1운동 그날의 열 되새겨... 백일장등 기념행사 다채

3·1절 76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대불청(회장 이상번)은 3·1절 기념행사로 중앙지국과 대구지국에서 '제16회 만해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중앙지국에 한국예술신학대학의 윤종란씨가, 대구지구에 주부 김희씨가 각각 만해대상을 차지했다.

실천승가회(공동회장 청화·지선스님)가 참여하고 있는 종교인협의회가 주최한 '기미독립운동 제76주년 종교인 기념식'도 회원과 시민 2백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3시 독립공원에서 거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락스님(조계종 포교원장),지원스님(실천승가회 상임지도위원),한세웅신부(장성동불사,원불교 서경전교무) 등이 참석했으며, 지선스님의 '종교인 통일선언문' 낭독 후 만세삼창이 이어졌다.

리말풀이 독립선언서에 대해 청정스님은 "관심있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다독고 보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총무원장 송철주스님도 3·1절 76주년 기념 담화문을 발표하고 "모든 불자들은 3·1운동 정신을 되살려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런 조국 건설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정스님(원각사 주지)은 오전 8시 탑골공원에서 어려운 한자로 된 독립선언서를 우리말로 쉽게 풀이한 '새'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의 의미를 되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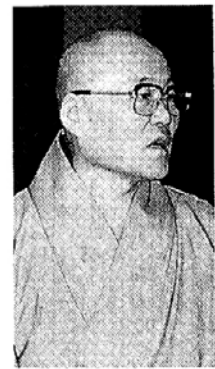
"우리들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과 조선사람이 남의 간섭을 받지 않는..."로 된 우

"모든 것 인연이라 믿을 뿐"

팔공산 암자 생활...정신과 혼 조계종 떠날 수 없어

진 조계종 총무원장 의현스님

작년 4월 조계종을 떠났던 진총무원장 의현스님이 지난달 28일 불교방송 제단 이사회에 공식적으로는 처음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그동안 어디서 지내셨습니까.



개회회의로부터 증경계를 받으신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징계 이전에 스스로 종단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혼은 결코 조계종을 떠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종단 사태에 대해

-8년간 재임기간에 대해 평가받지 못한 채 종단을 떠났는데...
▲종단을 위해 하루 3시간씩 잠을 자면서 분골하신 했던 8년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평가를 받느니 못받느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종단의 재산만큼은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땅 한켠 파는 것을 허용치 않았습니까.

이로 해인사 백련암을 찾아간 것은 무슨 이유였습니까. 가야산 호랑이 퇴출당 성철스님을 찾은 가톨릭 신자의 눈빛도 구심이 가는 것

라는 혁명적인 몸짓으로 불태웠고 촉발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후 스님은 매서운 다짐의 초발심을 한 순간도 놓지 않았다. 서울 필에서 아무리 일이 많아도 결제율이 되면 어김없이 해인사 선방에 가 있었다. 단 한 번도 재가자들에게 공양(식사)하는 모습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출가자로서 수행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물론 정신적 신념도 굳건히 지킨 것이 삼밀스님 이력에서 가장 눈부신 부분인 것

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옛 스님이 말씀하시길 '모든 일을 도에 기증두고 한결같이 전생의 인연이라 믿으라' 했으니 그 뜻을 따를 뿐입니다. -불교방송의 이사직을 그만두시게 되었는데. ▲그것 역시 여러 이사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불교방송 설립당시 개인 출연금을 출자해서 많은 지분이지만 인연이 닿는 대로 따르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공부해야지요. 그리고 길을 닦아야지요. -어떤 길을 뜻하는 겁니까. ▲인연이 다하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저 세상으로 가는 길을 닦겠다는 것입니다. (태)



목탁소리

임연태 (취재2부 차장)

출가절, 삼밀스님의 교훈

이것이 그들 혼을 태워 받아 계를 설하고 법명을 지어준 스승의 마음도 미공속의 불빛 같은 것이 아닐까. 어쨌든 삼밀스님은 일생 일대의 고뇌와 변민을 출가

5천여 불자가 이미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화엄경의 大講主 無比스님이 10년의 각고 끝에 완성한 화엄경 전12권

발간 두달만에, 無比스님 완역 한글화엄경을 구입하신 5천여분의 불자가 불교 최고의 경전인 화엄경의 세계를 확인하셨습니다.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이제 화엄경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족사관 한글화엄경 전12권은, 80권本 화엄경을 모두 한글로 완역하여 읽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엄경의 전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락을 나누고 상세한 소제목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미려한 편집과 큰 활자, 최상의 고급지 사용, 영구보존판 양장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또한 中國 天童山관 80화엄경 원문을 두 권에 수록하였고, 화엄경의 주요 어휘를 알기 쉽게 풀이한 <華嚴經小辭典>을 발간하여 독자들에게 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無比스님 완역 민족사관 한글화엄경의 특색입니다.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도서출판 민족사가 펴낸 무비스님 완역 <한글화엄경> 전12권은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華嚴經 전40품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이 책은 한국불교의 사상적 원천인 화엄사상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무비스님 완역 한글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연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덕스님과 석학들이 한결같이 권하는 무비스님 완역판 한글화엄경!



李智冠 스님(哲學博士, 前東國大 總長, 現 海印寺住持) 누구나 화엄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불교를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불교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精讀 하여야 할 책이라 생각되어 藏書로는 물론, 특히 젊은 학인스님과 불자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金 見 박사(文學博士,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教授) 우리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가이없는 자양을 이루어 온 경전은 화엄경입니다. 불자 여러분에게 無比스님의 완역판 한글화엄경을 삼가 추천하는 바입니다.



權 奇 炯 박사(哲學博士, 東國大學校 佛敎大學 學長) 화엄경을 바르게 읽고 실천하는 길이 바로 우리나라 불교의 얼을 되살리는 일임을 불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무비스님 완역판 한글화엄경의 수지독송을 권하는 바입니다.



보다 편리해진 구입방법 및 특전

1. 특가 전 12권 160,000원(2회 분할)(각종 카드로도 구입 가능)
 2. 신청 즉시 택배나 소포로 보내드리며, 화엄경소사전과 화엄변상도(1장), 화엄경 강연테이프(무비스님, 고은선생) 2개를 증정합니다.
 3. 송금방법: 아래의 은행구좌나 소액현금을 이용하십시오.
- (조흥은행) 390-01-033705 민족사 (제일은행) 130-10-080370 윤재승
(농협) 032-01-088461 윤재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재승
(우체국) 010041-0097045 윤재승 (국민은행) 023-01-0225-854 민족사
(신협은행) 15504-0475103 윤재승 (상업은행) 113-04-101987 민족사

도서출판 우편번호 110-130 서울 중로구 청진동 208-1 민족사 전 화 : (02)732-2403~4, 722-7679 팩스 : (02)739-7565

지방취급서점 : 부산 : 고려불교예술회(807-6842) 삼정원(464-2696) 경공교사님(부산 334-3035, 휴대 011-572-3007) 광주 : 불일서점(232-7542) 불교전서관(647-7393) 영광도서(816-9500) 부산불교문화사(466-3884) 대전 : 보문서점(257-0161)